



손흥민 LA서 뛴다

리그 최대 이적료 2,600만불 LAFC 입단...메시 이후 최대 파급력

손흥민이 LA에 왔다.

토트넘 홋스퍼에서 10년간 활약한 손흥민이 미국메이저리그사커(MLS) LAFC에 입단하며 "꿈이 이뤄졌다" 고 밝혔다.

손흥민은 6일 LA에서 열린 입단 기자회견에서 "모두 안녕하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정말 꿈이 이뤄졌습니다. LA, 정말 멋진 도시입니다" 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LAFC 구단주와 존 소렐턴 단장, 베넷 로젠탈 회장 등 구단이 저를 데려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밖에 있는 많은 한인 팬들을 보니 더욱 감격스럽다" 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LAFC와 지명 선수 자격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다.

2028년까지의 연장 옵션이 포함됐고, 추가로 2029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 ESPN에 따르면 이번 이적은 토트넘과 LAFC 간 약 2,600만 달러 규모로,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기록됐다.

그는 지난 2015년 바이엘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입단한 뒤,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며 두 차례 토트넘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 특히 2021-22시즌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골든 부트를 수상하기도 했다. 토트넘에서는 통산 137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는 건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팀이기 때문" 이라면서 "하지만 이제 새로운 장,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 손흥민이 6일 LA에서 열린 메이저리그사커 LAFC 입단식에서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AFP

다고 느꼈다. 그래서 LAFC를 선택했고, 내 나이를 생각하면 이제는 '늙었다' 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좋은 몸 상태와 다리, 그리고 기술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선수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나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고 전했다.

손흥민은 프리시즌 기간 동안 토트넘과 함께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렸으며 MLS 데뷔 준비도 거의 마쳤다고 밝혔다. "피지컬 상태는 아주 좋다. 나는 축구를 하러 여기에 왔고, 곧 경기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준비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코칭스태프와 함께 최대한 빨리 경기장에서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손흥민이 6일 LA국제공항(LAX)에는 약 40여 명의 팬들이 나와 도착과 함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곧바로 LAFC 홈경기장으로 갔다. 손흥민이 BMO 스타디움 전광판에 등장하자, 관중석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지난 10년간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하며 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한인 인구가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많은 LA는 손흥민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지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은 한인타운에서 몇 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손흥민의 합류는 2년 전 인터 마이애미가 리오넬 메시를 영입했던 것 이후 MLS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이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바이에른 뮌헨의 전설 토마스 뮐러를 영입한 것과 함께, MLS가 다시금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 시절 함께했던 골키퍼 위고 요리스와 LAFC에서 다시 한 팀이 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손흥민은 현재 MLS 서부 콘퍼런스에서 6위(10승 6무 6패)를 달리고 있는 LAFC에 득점력과 스타성을 동시에 제공할 선수로 기대를 모은다. LAFC는 지난 해에도 올리비에 지루 영입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크지 않았고, 손흥민은 팀 전술에 더 적합한 자원이라는 평가다. 다만, 팀을 이끌고 있는 스티브 체룬들로 감독의 향후 거취가 불확실한 가운데, 손흥민이 어떤 방식으로 팀에 녹아들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국, 일본, 태국 테마 여행

2025년 10월 20일(월) ~ 11월 2일(일)

\$1,300 (1인/항공료 별도)

한국 단풍 및 新해안 관광

10월 20일(월) ~ 26일(일) 6일

영종도, 제주도, 서해랑 海上 케이블 카, 행담도, 새만금, 장자도, 채석강 해식 동굴, 격포항, 입자도 대기리, 중도, 태평 염전, 문준경 기념관, 진도 타워, 명랑 海上 해상 케이블카, 완도, 신지도, 명사십리, 가우도, 순천 국가 정원, 진주성, 양산,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 대왕암 공원, 충주 탄금대 전망

\$1,500 (1인/항공료 별도)

일본 홋카이도(북해도) 삿포로: 단풍 온천 스키관광

10월 26일(일) ~ 29일(수) 4일

삿포로, 노잔 호수 공원, 노보리베츠 온천, 지옥 계곡, 도야 호수 & 유람선, 쇼와 진잔, 사이로 전망대, 오타루 운하, 과자 거리, 유리 공방, 오르골 박물관, 다나카 양조장, 키타유자와 온천, 오도리공원 및 TV Tower, 스키노, 시로이 코이비토 팍, 시계 타워

\$700 (1인/항공료 별도)

태국 방콕/파타야 휴양지 및 유적지, 산호섬 관광

10/29(수) ~ 11/2(일) 5일

무앙 보란 유적, 태국 전통 민속 공연, 나수 Nasu Farm, 산호섬(꼬란섬) 각종 레저 체험, Bali Hai Pier, 농늑 빌리지, 파타야 水上수상 시장, 황금 절벽 사원 (왓 카오 치 켄), 水上 수상부페, 진리의 성전 (Sanctuary of Truth), 아시아티크 Asiatique, 수완나품, 유람 스끼